

민원

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번호	20250912-00001				
제 목	3개 제안사안에 대한 건의 및 당부.				
작성자	이**	작성일시	2025-09-12 00:33:32	답변여부	접수
민원 발생지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구청장, 행정문화국장,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복지교육국장,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감사담당관실, 인권센터, 직소민원팀, 직소민원실, 기타해당부서 선별.				
처리부서					
첨부파일					

내용

-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관련근거
(1) 현장구청장실 제안) 사고위험 상존가정에 대한 생명안전 안심지원 사업(2024.08.28. 오프라인 제안 / 2025.09.03. 온라인 다시 제안)
(2) 주민제안) 매니페스토 기본 개념의 제도화 및 구정운영에 즉시 적용(2025.09.06. 온라인 제안)
(3) 주민제안) 미완료 민원사안에 대한 구청 책임 종료제(또는 책임제)

3. 당부 내용

위 관련근거와 같이 제가 제안한 3개 사안에 대해 오랫동안 제 가정과 가족구성원들이 겪었던 지옥과도 같은 고통의 경험에서 발원된 것이며, 저희에게 있었던 일이 성북구에 거주하고 계신 다른 가정에 발생치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께서는 과거 구청의 잘못과 실수로 발생되었던 일로 인해 또 다른 오해와 왜곡, 위축에 따른 거부를 하지 마시라는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개선을 시킬려는 의지만 있을 뿐입니다.

(1) 사고위험 상존가정에 대한 생명안전 안심지원 사업(가칭: 우리동네 생명안전 0순위)

① 위 사업은 위급하거나 중대한 사고(또는 사건)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정과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구청 담당부서에서 설명하신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의 담당업무인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지원 서비스’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신규 개념의 사업입니다. 또한 해당 제도는 구청 담당부서에서 매우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 제안인의 문의로 담당부서에서 그제서야 내용을 파악했고, 제안인이 직접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제도의 내용을 알려드렸다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가 제안드린 사업은 그 대상이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그 기준 역시 소득이나 재산 등으로 차별화 되어 있지 않고, 현지침에 따라 시청이 일정 대상자(독거노인)를 담당하고 구청이 일정 대상자(중증장애인)를 담당하는 떠안는 식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무상지원 제도가 아니라 대상자의 형편에 따라 유·무상으로 비용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③ 제가 제안한 사업은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명이 위급한 사고(또는 사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정과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함에 있어 구청이 메인센터 역할을 하고, 경찰, 소방, 병원, 기타 유관기관과 사전에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이를 활용하여 대상자 가정과 가족구성원에게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인명이 위급하고 위중한 중대 사고(또는 사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각 기관이 협력하여 병원의 응급 치료까지 지원하여 인명을 구하자는 궁극적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대상의 금전적 상황에 따라 유·무상을 구별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대상 범위 역시 훨씬 폭이 넓기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④ 구청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현재 존재자체도 알지 못하는 시청과 구청이 쪼개기식으로 운영되는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지원 제도’와는 그 대상과 지원 방법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예산(돈)을 먼저 앞에 두는 것이라면 제가 제안드린 사업은 사람의 생명을 먼저 앞에 두고 사람의 생명을 먼저 구하자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비용발생은 차후 부담 영역을 정해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예산(돈)이라는 이유로 뒤로 두고 경시되는 사고방식과 복지차원의 지원사업으로 폄하하는 것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대상범위를 확대한 생명이 위급한 인명사고 예방 및 인명을 구하는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가정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었고, 사람이 죽을 뻔 했고, 사람이 죽으려 했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제가 제안드린 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의 소관부서를 행정문화국에 속한 부서에서 검토하신 후, 소관부서를 지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는 적극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오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전혀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 두렵고 걱정이 크답니다.

(2) 매니페스토 기본 개념의 제도화 및 구정운영에 즉시 적용

① 위 제안은 구청장께서 공약과 함께 공언하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어떤 사유로 이러한 공언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왕지사 공언을 하셨다면 제도화(또는 지침과 기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제안한 것입니다.

② 또한, 저희 가족의 일을 제가 보호자(또는 대리인) 입장에서 가족(작년에 돌아가신

치매노모, 중증자폐성발달장애인 아들)을 대신하여 성북구청과 민원 처리를 하며, 모질게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청장께서 공언하신 ‘매니페스토’를 적극 공감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은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보다 잘 구성하여 현업과 현실에 적용시켜 반영된다면 이보다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매니페스토의 기본개념을 구청에 계신 공무원께서 모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제 경험에 있어 성북구청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할 개념 같습니다.

③ 구청에 계신 공무원께서는 단순한 일(또는 업무)일지 몰라도 구민의 한 가정 또는 가족에게는 바로 삶과 연계되는 중대한 사안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구청 공무원들의 거짓말 또는 실언 또는 잘못된 행위로 인해 저희 가정과 가족구성원에게 고통스러웠던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찰하시기를 당부합니다.

④ 거짓말과 부작위를 덮기 위해서는 또다른 거짓말과 부작위가 수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한 반성에 따른 개선의 노력과 의지가 매우 필요하답니다. 구태의연, 안일무사, 복지부동의 사고방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잘못된 관습 무엇 하나도 개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도로 구청장께서 공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말로 끝나자고 공언하신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담당자께서는 실천중이라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 그런 모습이 조금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⑤ 위와 같은 사유로 구청의 구정 운영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점을 상기하여 ‘매니페스토’의 기본 개념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구정 운영에 적용하기 위해 제도화 또는 지침과 기준을 정해 즉시 운용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3) 미완료 민원사안에 대한 구청 책임 종료제(또는 책임제)

① 위 제도 역시 제가 제 가족의 일을 보호자의 입장에서 구청과 일처리를 하며, 수년간 솔하게 겪었던 사항입니다. 구청의 고의적인 처리 지연과 불성실한 처리로 인해 제 가정에 피해와 불이익을 끼쳤던 것을 성북구청 해당 부서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백이면 백, 전부 다 구청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② 하지만 구청의 그러한 부작위로 인해 수년간 꼬리가 꼬리를 물 듯 이어져 간 것입니다. 저 역시 구청 공무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치더라도 정도와 한계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치매 노모와 중증자폐성발달장애인 아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 일입니다. 또한, 정당한 민원에 대해 정직하고 성실한 응대 및 처리보다는 관료주의의 습성으로 저와 제 아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와 회피, 회유와 협박, 심지어 아무런 이유없는 폭력(언어폭력 포함) 행사도 서슴치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작년에 저희 가정에 크나큰 피해와 불이익으로 이어진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성북구청의 행정 갑질과 횡포라 뱉속 깊이 느끼고 담아놓고 있습니다. 잊으려 해도 결코 잊혀지지 않을 일입니다.

③ 이에 위 (2)의 ‘매니페스토’ 사안에 근거하여 더 이상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며, 정기·비정기적인 인사발령과 민원인에게 무한 반복적인 민원 제기를 하게 만들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함부로 구청 맘대로 민원사안을 덮어버리는 부작위한 민원응대와 처리를 발생시켜 민원사안이 종결되지 않은 채 묻혀지는 일이 절대 발생치 않도록 ‘미완료 민원사안에 대한 구청 책임제’를 운용하기를 적극 제안합니다.

④ 또한, 제도 운용에 있어 그 지침과 기준은 반드시 정직하고 성실한 응대 및 처리에 두어야 할 것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과 공무원의 양심이 중요한 것이고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맺음말

(1) 위와 같이 제가 제안한 3개안에 대한 사유와 목적, 그리고 방안과 기본적인 기반까지 성심성의껏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구청장께 보고하고 구청장께서 인지하셔서 검토할 사안입니다. 구청장께 있는 사실대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구청장실 제안이며 구청장께서 공언하신 ‘매니페스토’와 관련된 제안입니다. 구청장만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권한에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2) 이에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주시길 바라며, 더 이상의 어불성설, 횡설수설, 소관부서를 여기저기로 돌려놓고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고의적으로 사안진행을 지연시키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행위를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3) 또한,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인해 제 아들과 저를 성북구청의 말도 안되는 개인적 뇌피셜로 왜곡된 시선과 잘못된 인식으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성북구청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가 성북구청에 계신 잘못하신 분들을 용서할 줄 알고 저희 잘못을 책임질 줄 아는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을 가지고 있기에 정직합니다. 성북구청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잘못된 프레임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과 ‘적반하장’과 ‘이장폐천’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그 또한 성북구청 스스로가 만든 피해의식과 죄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잘못된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시길 바랍니다.

(4) 앞으로 성북구청 자신들의 과거 잘못으로부터 벗어나 사람의 양심에 따라 깊이 성찰하시고, 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올바르게 개선된 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끝.

첨언 : 별도의 첨부자료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공익과 관련된 제안에 관한 건의 및 당부이기에 공개로 신청 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에게바란다’의 온라인 민원창구만을 활용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해당부서와 해당되는 분들께 바로 전달을 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건의와 당부의 말씀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서로에게 시간 낭비입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 구민의 소중한 시간과 삶을 허투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상급자들의 영향으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장문의 건의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올바르게 구정운영에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삭제](#)[목록](#)